

# 군산시간여행, 최우수 축제 선정

# 부송4지구 데시앙 건립 이상없다

### 익산시, 점검 결과 태양건설 포함 14개 분양아파트 공사 정상추진

### 5년 연속 타이틀 · 도비 7000만원 지원 받아

군산시 대표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다.

군은 타이틀과 함께 도비 7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군산시 대표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가 '전라북도 최우수 축제'로 선정되었다.

전반을 심사하여 군산시간여행축제를 최우수 축제로 선정하였다.

2023년 11회를 맞이한 시간여행축제는 '군산시간여행, 100년의 미(味)를 찾아서'를 주제로, '근대의 맛'을 축제 테마로 정하여 군산의 다양한 유형, 무형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여행의 묘미를 연출하였다.

또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기획,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한 교육적 성과를 냈고 축제기간 중 많은 관광객 유입의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평가다.

실제로 2023년 시간여행축제 기간 방문객 계속 결과 2022년 1만1,353명보다 3만 명가량 증가한 130,647명이 축제장을 방문하여 45억8,000여만원의 경제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 관계자는 "군산시간여행축제가 5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것은 주민축제학교, 시민기획프로그램, 군산스타오디션 등을 통해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만들었기에 가능했다"라며 "앞으로도 시간여행축제가 지속 가능하고 내실 있는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가 태양건설의 부송 4지구 데시앙아파트 건립 긴급점검에 대해 '이상없다'는 확인을 전북개발공사로부터 받았다.

태양건설은 지난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황이지만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송 4지구 데시앙아파트 시공을 이상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문제가 될수 있는 상황에 대해 전북개발공사는 "전라북도가 100% 출자한 사업주체인 전북개발공사는 건설공사 준공 및 입주를 약속하는 안내문을 분양 계약자에게 지난 12월 28일 발송했다"라고 밝혔다.

시는 태양건설을 포함한 14개 분양아파트에 대한 긴급점검 결과, 정상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왕궁 푸르지오 674세대를 시작으로 올해 1월 마동 현대힐스테이트 454세대, 2월 황등 제일오 120세대, 8월 남동 광신 541세대, 수도산공원 제일풍경채 1,566세대 등 숲세권 내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준공을 앞두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경직된 상황에서도 2021년부터 정확한 현황분석 및 장기적인 안목의 주택정책에 맞춰 적재적소에 공동주택을 공급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아파트 공급에 따른 인구유출 감소,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세수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주택산업연구원의 올해 주택시장 전망을 보면 올해 상반기 중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금리 하향조정과 경기회복 등에 맞춰 하반기부터 주택거래가 회복되고 내년부터 경기가 더 좋아질 경우 주택시장 과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송 4지구 데시앙아파트((주)태양건설)의 경우 시공사인 (주)태양건설이 12월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황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익산시보건소, 건강증진분야 기관 표창 4관왕 쾌거

익산시보건소가 전북도가 주관한 각종 건강증진 분야 평가에서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보건소는 지난해 △통합건강증진사업 △암·건강검진사업 △영양 관리 사업 △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도지사 표창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우선 보건소는 지역 특성과 수요에 부합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난 3월 암·건강검진 수검률 향상에 기여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한 공이 인정되며 암·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영양관리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영양 관리사업 유공기관 표창을 지난 10월에는 정신질환 관련 지자체 합동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정신건강증진사업 유공기관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이진운 보건소장은 "건강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한 직원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을 맺어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에도 시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보건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보건소, 난임부부 진단·시술비 지원 확대

군산시보건소는 2024년부터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에게만 지원했던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용을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신신배(9회) 최대 110만 원 동결배(7회) 최대 50만 원 인공수정(5회) 최대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난임 시술을 하기 위해 사전에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궁 및 난

관, 정액 검사 등 난임 진단에 소요되는 검사비용을 난임으로 진단받은 경우 부부당 1회에 한해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 강화를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지지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임신하고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보건소 가족건강계(454-5854)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 호남 철도교통 중심지 익산역 공영주차타워 준공

### 기존 80면 평면주차장을 3층 187면 입체 주차타워 탈바꿈... 익산역 이용객 · 인근 주차난 해소 기대

익산시는 3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국회의원,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역 공영주차타워 준공식을 개최했다.

호남 철도교통의 관문이자 세계로 뻗어 나가는 시발역인 익산역이 새롭게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하면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익산역 공영주차타워는 2020년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87억원이 투입됐다.

면적 4,845㎡, 지상 3층 4단 규모로 승용차를 총 187대 수용할 수 있으며, 층별 주차 현황 제공, 주차 가능 면을 알려주는 주차유도시스템, 전기차 충전기(급속 2면, 완속 7면), 사전무인정산기 등을 설치하여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주차환경과 편의성을 제공한다.

이날 준공식에서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역 공영주차타워는 호남 철도교통의 중심지인 익산역 활성화를 위한 거점 주차타워가 될 것이며, 더불어 익산역 상권을 살리는 미중물 역할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3일 정현을 익산시장과 국회의원, 지역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역 공영주차타워 준공식을 개최했다

익산역 공영주차타워 운영 시간은 24시간 유료로 운영되며, 주차 요금은 최초 30분 무료, 이후 30분마다 500원, 1일 최대 6,000원으로 경차는 60%, 장애인·국가유공자·저공해차량·무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등은 50% 감면된다.

또한, 익산역 철도 이용객들은 24시

간 무료이며, 출차 중 철도 승차권에 있는 QR코드를 정산기에 스캔하면 된다.

익산역 공영주차타워는 준공 후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이 위탁 운영하며, 이달 31일까지 시범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육훈을 주는 곳이다.

